

유럽 청년농업인 실태와 육성 전략*

김 경 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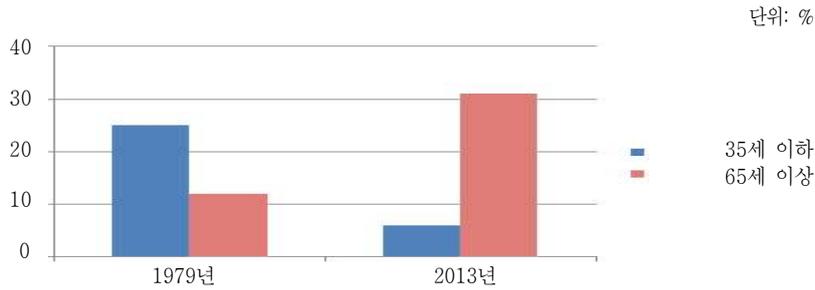
청년의 영농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 또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지원하고자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유럽 청년 농업인 협의회(Conseil Europeen des Jeunes Agriculteurs, CEJA)에서도 자신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의 청년 농업인 및 관련 정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CEJA가 제시한 육성 전략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유럽의 청년 농업인 현황

유럽에서도 농업인의 고령화 및 청년층의 도시 이동 현상으로 인해, 청년 농업인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해왔다. 1979년 전체 농업인 중 35세 이하 농업인의 비중은 약 25%였고, 65세 이상 농업인의 비중은 약 12%이었다. 그러나 2013년 전체 농업인 중 65세 이상 농업인의 비중은 30% 이상으로 급증하였고 35세 이하 농업인의 비중은 전체의 약 6.0% 대로 줄어들었다<그림 1>.

* (kikim@krei.re.kr). 이 글에서 제시한 육성 전략은 CEJA(Conseil Europeen des Jeunes Agriculteurs)가 발표한 보고서 *Young farmers are key in the future CAP(2016)*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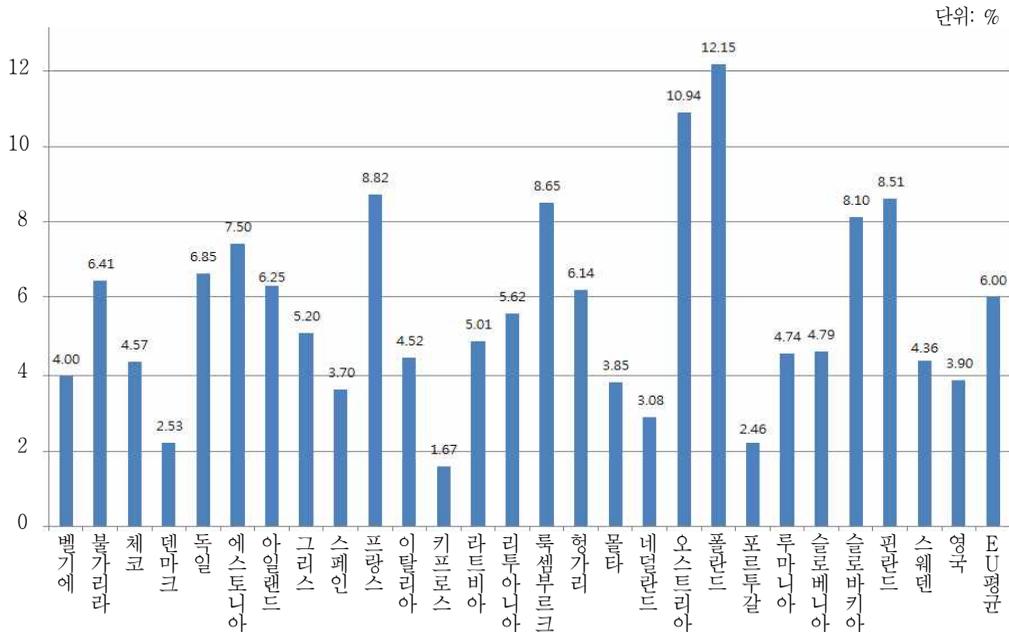
그림 1. EU 국가들의 청년농, 고령농 비율의 평균 변화(1979, 2013)



자료: CEJA(2013). Young Farmers in Europe.

EU 국가들의 35세 이하 청년 농업인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 평균 수준(6.0%)보다 높은 국가는 불가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11개국이다. 그 중에서 폴란드의 청년 농업인 비중은 12.15%로 EU 국가에서 가장 높았다. 청년 농업인의 비중이 유럽 평균 수준보다 낮은 국가는 벨기에, 체코,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이다. 그 중에서도 키프로스는 1.6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그림 2>.

그림 2. EU 국가들의 청년 농업인 비율(2013)



자료: EUROSTAT(2013). Farm Structure Survey.

소수의 동유럽 국가들의 청년 농업인의 미래는 앞으로 유망하다고 판단되나, 나머지 국가들의 청년 농업인 비중은 현재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 더욱 감소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CEJA 2013).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더욱 많은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CEJA 2016).

3. 유럽의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

1962년 도입된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현재까지도 유럽의 식량 안보와 농촌지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이게 공급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괜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CAP의 목적이다. EU는 2009년부터 차기(2014년~2020년) CAP에 관한 내용을 구상하였고, 2013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정책이 양 축(Pillar)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양 축 간의 연계성이 좀 더 강화되었다. CAP의 주요한 정책 목표 및 수단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CAP의 1축과 2축의 정책 목표 및 수단

정책목표	1축(Pillar I)의 정책 수단	2축(Pillar II)의 정책 수단
환경	녹색지불	환경기후정책, 유기농, Natura 2000
청년영농	청년 농업인 추가 직불	청년 영농 정착 지원, 투자 지원
자연제약지역	추가직불	조건불리지역
소농	소농을 위한 단순직불	개발지원
생산자조직화 (협동조합)	법적제도 개선	생산자조직화지원, 협동조합, 근거리유통망 구축 지원

자료: 유찬희(2016) p19 재인용.

양축 간의 정책 수단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1축의 정책 수단들은 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2축의 정책 수단들에 의해 보완된다. 각 회원국은 자신들의 농업 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1축의 정책 수단을 예산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EU는 관련 규정 및 회원국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자율성을 부여한다(유찬희 2016).

1축에 제시되어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추가 직불금은 1축의 핵심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CEJA 2013). 18세~40세 미만의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2축의 영농정착지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직불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신규 청년 농업인들이 기존의 직접 직불금의 수혜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입되었다. 원래 수령할 직불금의 25%까지 가산한 금액을 5년간 수령할 수 있다. 단, 경지 면적이 직불금 효율에 크게 영향을 주기에 국가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청년 직불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면적은 25~90ha로 제한하였다. 총 금액은 국가별로 배정된 직접 직불금 총액의 2%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¹⁾ 수혜자는 자산(토지, 가축 등)을 구입하는 데는 직불금을 사용할 수 없고, 농기계 현대화, 농산물 가공, 농산품 품질 개선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직불금 수령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또는 훈련의 수준은 회원국들 간에 차이가 있다.

2축은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measures)을 담당하며, 농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영농다각화, 농촌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EU와 회원국이 재원을 분담하고,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을 통해 집행이 된다. 창업 농업인을 위한 지원으로 영농 계획에 따라 7만 유로까지, 최대 5년간 용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영농기반(physical assets)에 대한 투자는 기존 농업인보다 20% 이상 추가 지원한다. 전문적인 교육·훈련, 경영 컨설팅, 인프라 구축 등도 지원한다.

4. CEJA가 제시한 유럽 청년 농업인의 육성 전략

유럽 청년 농업인 협의회(Conseil European des Jeunes Agriculteurs, CEJA)는 1958년 이탈리아에서 창립되었다. 초기에는 6개 회원국의 청년 농업인 조합으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EU의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되었다. CEJA의 주된 목적은 EU회원국 청년 농업인들의 대표자로서, 청년들의 혁신적인 농업을 장려하며 청년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회원국들의 청년 농업인의 의견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NGO)로서, 총회(General Assembly)를 두고 있다. 총회는 청년 농업인 중에서 1명의 대표와 4명의 부대표를 2년마다 선출하며, 이들은 매년 핵심 이슈들과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대표단들은 지속적으로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고

1) 청년 농업인 직불금 규모는 ha 당 66~100 유로로 추산됨. 평균 경지면적을 토대로 계산 시 943~1430 유로 정도임. EU 농가당 평균 총 직불금 수령액은 ha 당 402.7 유로 정도임. 농가당 경지면적이 2013년 기준 14.3 ha이므로 평균 수령액은 5758.6 유로 정도임(마상진·김경인 2017).

CEJA의 모든 활동들을 관리한다. CEJA의 본부 사무국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으며 EU 본부와 매우 가까워 일을 처리하기 용이하다. 본부 사무총장 및 스태프들은 전반적이고 일상적인 관리들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진입하려는 청년들까지 포함한 모두의 근로 환경과 삶의 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CEJA는 EU 관련 기관들의 이해관계자들과 자주 토론을 한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에 관한 모범적 실천들, 농업 정책에 관한 전망, 청년 농업인의 미래 등에 관한 새로운 플랫폼과 네트워크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2015년 9월부터는 청년 농업인 정책에 관한 선언문(manifesto)도 발표하고 있는데, 유럽 공동농업정책 CAP을 넘어선 청년 농업인에 관한 모든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해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청년 농업인의 미래와 유럽 농정에 대한 사명감을 드러내고 있다.

CAP이 도입된 이후부터 CEJA는 농업 위기 때 마다 변화하여 온 청년 농업인의 입장들을 대변함으로써 CAP이 청년 농업인을 확보하고, 유럽인들을 위한 안정적 식량 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3년에는 CEJA의 노력 덕분에,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 농업인 관련 문제가 개혁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축 청년 농업인에 관한 의무조항들도 들어가게 되었다. 이 조항들은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직접 직불금의 추가 지불(top-up)도 포함한다. 새로운 농촌개발프로그램 RDP에 의한 수많은 청년 농업인 지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CEJA는 이러한 점들이 유럽 농업의 인구학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정책 결정자들이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고, 지속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적 입장을 발표하는데 힘쓰고 있다.

4.1. 청년 농업인 직불금 관련 전략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CEJA는 미래의 유럽 CAP이 가족농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직불금은 현재 활동 농업인(Active Farmer)²⁾들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활동 농업인

2) 활동농업인(농축유통신문 2012), 실경작자(농축유통신문 2012), 실제 활동 농가(이상만 2012), 실경작 농업인(마상진 외 2017)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활동농업인으로 통일하여 사용함.

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사업 및 생산 관리에 재정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다.
- 공공 행정기관에 의해 인정을 받는다.
- 농업 활동으로부터 공공재를 생산한다.

그러나 CEJA는 이 정의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아래와 같은 기준들이 추후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 연금 수급자는 직불금과 법정 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다
- 활동 농업인이 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농업교육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소득 수준 및 노동 시간 등으로 인해 활동 농업인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EU 차원의 리스트 정리가 필요하다.
- 회원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 리스트들에 추가 기준을 제정하여 소득 수준 및 노동 시간에 대한 비율을 규정해야 한다.

활동 농업인에 대한 정의나 기준들이 변화하면, 직불금 대상이 바뀔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직불금이 지난 수년간 시장 변동에 따라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으로 상황에 적합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토지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직불금이 오직 토지 문제만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직불금은 리스크 관리, 환경에 기반한 경영 관리, 금융 상품, 공공재 등에 대한 톨을 통해 정책적 목표에 도달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CEJA는 모든 청년 농업인의 육성·지원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경영 개발 계획(business development plan)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직불금의 대상이 되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활동 농업인
- 41세 이하
- 농업 교육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자

게다가 모든 청년 농업인들이 회원국의 전체 평균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금은 지속적이고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지원금은 평균 이하인 전체 농업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청년 농업인은 그 무엇보다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4.2. 농촌개발프로그램(RDP) 관련 전략

농촌개발프로그램(RDP)은 유럽의 농촌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며, 궁극적으로 일자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다.

농업과 농업인은 농촌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CEJA가 전체 RDP펀드의 최소 10%를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위한 총체적 수단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RDP는 농업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세대 간 협력을 고취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CEJA는 효과적인 RDP의 미래를 위하여 구축해야 하는 다수의 영역들을 다음과 같이 식별하였다.

(1) 창업 & 지속적인 투자 보조금

농촌 지역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이 필요하다

- 전체 예산기간 동안 모든 회원국에서 창업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
-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현실적이고, 의무적인 투자 보조금 유지
- 소외 지역의 청년 농업인의 구체적인 지원 유지
- 창업 및 투자 보조금의 질을 위해 필요한 농업교육 및 명확한 사업 계획

(2) 토지 이동성 및 승계 계획

유럽의 청년 농업인들은 토지 접근성, 이동성, 승계 및 상속에 있어 여러 형태의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 간의 토지 매칭서비스를 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들은 RDP의 펀딩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직들은 토지 승계 계획, 파트너십, 공유 농업, 임대 계약 등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 및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방안들은 농업인들의 토지 접근성을 높이고, 그들의 농업 경력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고령 농업인들이 은퇴를 준비하며, 작업량을 줄이고, 청년 농업인들의 농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3) 지식 전수(knowledge transfer)

농업인들이 이론으로부터 실천으로 원활하게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지식 전수를 위해서는 농업인들 간의 경험과 지식의 교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 다른 지역, 다른 품목, 다른 세대의 농업인들 간,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지식 전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통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농장에서 농업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CAP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알게 될 때 농업과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기술 향상 및 훈련을 통한 전문성 개발이 요구된다.
- 자문 서비스(advisory service)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이 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바우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지식 전수와 자문은 금전적인 이유로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투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유럽 전역의 청년 농업인 조직은 회원들의 지식 전수를 보조하며, RDP를 통해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농업인, 대학, NGO,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의 농업과 정책의 미래에 혁신과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에서 제공되는 직업 훈련을 현대화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직업 훈련에 제공되는 ESF(European Social Fund)를 확대해야 한다.

(4) 농업인 웰빙

고된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활동 농업인은 1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 및 안전 관련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농업인 보조

농업인을 보조하는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행 가능한 휴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병(sickness)
- 휴일(holiday)
- 교육 훈련(training)
- 육아 휴직(maternity/paternity leave)
- 청년 농업인 조직 참여(young farmer organizations)

(6) 집단 행동

CAP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청년 농업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CAP은 농업인의 교섭력(bargaining power) 강화를 위해 생산자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생산자 단체의 기능 향상을 위한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농업인들은 RDP의 영향력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정책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7)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농촌의 청년들도 도시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접근성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도시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들(예를 들어, 초고속 인터넷 등)은 농촌에도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며 청년 농업인들이 농장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것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 Smart Agriculture에 대한 CEJA의 입장

유럽의 청년 농업인들은 스마트 농업을 도입하고자 노력하지만, 접근성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EU는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혁신적인 농업 기술과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능력을 갖출 것을 권장한다. CEJA 또한 이에 동의하며, 성공적인 혁신 및 기술 도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했다.

- E-farming과 E-commerce의 향상을 위해 유럽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나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스마트 농업 방법에 관한 자료들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자료들의 수집과 공유에 관해서 CEJA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농업인은 자료의 생산자이자 소유자로 볼 수 있다. 농업인들의 자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교육·훈련 또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조직과의 파트너십 등이 필요하다.
- 정보의 소유권 관련 문제, 자료의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정보는 농업부문 내에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CEJA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의 기술들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농업 실천의 훈련, 개선, 비즈니스 모델(마케팅 및 판매 등) 개발 등을 통해 단순 기술의 범위를 벗어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나가며

유럽의 청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청년 농업인 협의회 of 지속적인 네트워킹 및 정책 제안 등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특히 CEJA가 제시하고 있는 전략들을 살펴보면 청년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럽의 농업 현실 개선과 농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해 숙고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단순히 그들의 이익과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교육·훈련을 통한 합당한 능력과 경험 등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고 제시한 내용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청년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것들이다. 무엇보다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목표로 함을 기반에 두고 있다.

청년 농업인(40세 미만)의 비율이 1.3%(통계청 2015)에 불과한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에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들을 전제로 할 때 청년 신규 진입자들을 농업으로 유인

하며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들은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착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지급방식, 규모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 정책이 도입 취지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철저한 사업계획 작성 및 이행 지원, 적절한 교육·훈련 실시 등 세밀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농업인들과 정책 전문가 등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여 농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또는 이미 진입해 있는 청년들의 장애요인과 필요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CEJA. 2016. *Young Farmers are key in the Future CAP*. CEJA.
- CEJA. 2013. *Young Farmers in Europe*. CEJA.
- 김재민. 2012. 「농업직불금 지불 실경작자 위주로 전환 추진」. 농축유통신문 2012.05.25.
- 농림축산식품부. 2017.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 검토 내부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마상진·김경인. 2017.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2016. 「농업 인력육성정책으로서의 귀농 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찬희·오현석. 2016. 「유럽 생태직불제 조사 결과 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상만. 2012. “CAP 개혁,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나라경제」. KDI.
- 통계청. 2015. 농업총조사. 통계청.

참고사이트

- CEJA(www.ceja.eu)
- EUROSTAT(ec.europa.eu/eurostat)